전무후무한 역사 (여호수아 10:1-14)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약속대로 하신다.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간단하고 쉽다. 하나님 약속따라 살면 된다. 근본 문제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다. 알면서도 어쩔수 없는게 이 문제다. 그래서 하나님이 답을 주셨다. 우리는 안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답을 주셨다. 모든 문제의 원인 세가지에 대하여 답을 주셨다. 이것으로 살면 된다. 그것이 그리스도이다.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다. 이 답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피를 흘리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언약대로 하신다. 참 놀랍고 감사하다. 이 언약 성취를 위하여 세상의 모든 일을 하시는 것이다. 불신자들도 자기들도 모르게 이 계획 안에 다 들어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항상 초점은 이 약속을 세상을 향해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을 하나님이 근본문제 세가지에서 계속 건져내시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며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항상 이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방향이 너무나 뚜렷하다. 남을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 먼저 이렇게 해야 한다. 그리고 성경은 이런 인생을 산 많은 사람들의 인생 스토리를 써 놨다. 이 언약을 가지고 산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했으며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반복적으로 써 놨다. 함께 복음 운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기적들이 많이 있다. 우리 중에도 많이 있다. 개인적으로 말할수 없어서 그렇지. 처음 이 복음 운동 시작했을 때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 어떤 여자 분이 아주 중요한 돈 삼천만원을 가방에 넣고 가져갔다. 미국 돈으로 한 삼만불 된다. 그런데 소매치기 당했다. 요즘은 이런 사람이 한국에 있다는 소리를 못 들었다. 조금 오래 전이기 때문에. 여자분이 겁이 나는 것이다. 사람이 남자인데다가 도둑놈이 겁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분이 복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계속 따라가면서 사단 결박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 무너지라고 한 것이다. 그래서 그 남자가 지하철 내리고 타고 내리고 타고 하는데 계속 따라가면서 한 것이다. 이 남자가 순간적으로 싹 돌아서서 가방을 다시 주고 가버렸다는 것이다. 참 기가 막힌 일이다. 유튜브 간증 들어보면 기가 막힌 일들이 너무나 많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약속대로 하신다. 그리스도가 답이고 충분하다. 언약 딱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인생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크게 세가지 약속하셨다. 너는 모든 저주에서 해방이라고 약속하셨다. 믿어야 한다. 아닌 것 같을 때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사단앞에 선포해야 한다. 나는 저주에서 해방이다. 가라. 뱀의 머리 깨주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리스도, 너는 깨졌어. 고백하는 것이다. 이것이 전쟁이고 기도이다. 선포이다. 그렇게 해서 영적 문제에서 해방되고 오히려 사단을 정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다.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만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천국 가기 전에 24시간 하나님 누릴 수 있다는 이 언약을 완성했다고 말씀하고 계시다. 우리는 이 약속과 함께 사는 것이다. 다시 한번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이것이 여기, 이것으로 끝이다. 이 약속이 계속 믿어지는 것이다. 이 약속이 진짜 믿어지는 것이다. 이 약속이 답이라고 정말로 잡는 것이다. 진짜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우리 모두에게. 그래서 매일 깊이 들어가는 것이다. 오직 이것 하나가 사람을 살린다. 그 외에는 전부 임시적인 것이다. 이 약속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내 가정도, 경제도 건강도 자녀의 미래도 여기에 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약속을 잡고 예배를 드리기 바란다. 진짜 언약으로 들어오기 바란다.

1. 전무후무한 역사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데로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났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머물렀다. 과학적으로 이야기 하면 지구가 돌아가다가 멈춘 것이다. 놀라운 일이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고 아이성 정복한 것이 8장에 나온다. 그런데 9장에 보면 기브온 족속 사람들이 멀리서 온 것처럼 속여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였다. 그래서 진짜 멀리서 온줄 알고, 곰팡이 난 빵 가지고 오고 그래서 속아서 화친을 맺고 죽이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한 것이다. 알고 보니 거짓말이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고 여리고 성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안될 것 같으니까 꾀를 쓴 것이다. 그래서 죽이지 않기로 맹세를 했는데, 알고 보니 거짓말이었던 것이다. 거짓말인지 들통났으면 죽여야 하는데, 맹세한 것 때문에 안 죽이고 살려줬다. 하나님의 뜻은 그 사람들 전부 다 죽이고, 너무 우상숭배가 심하니까, 진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게 목표니까. 너무 악하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따르면 4백년이나 기다렸다는 것이다. 큰 목표는 전부 다 죽이고 새 나라를 만드는 것인데, 율법안의 한 조항, 맹세한 것은 지키라는 것 때문에 살려주게 된 것이다. 생각해 볼만한 일이다. 전체 목표는 죽이는 것인데, 맹세 때문에 살려줬다? 이건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어쨌든 맹세해서 살려주기로 했으니까 형제 비슷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아모리왕,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에 사는 민족중 대표적인 민족인데, 그 중 다섯 왕이 합해서 이 기브온 민족을 쳐들어 온 것이다. 그 때 일어난 기록을 오늘 써 놓은 것이다. 그래서 아모리 다섯 왕 뿐 아니라 가나안 모든 족속을 다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기브온을 도우러 갈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사람들을 전부 너의 손에 붙였다고 하였다. 8절 보면 한 사람도 너를 당할자가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한 사람도 안 살려주는 것이다. 그 정도로 그 사람들이 악했다. 그리고 그 정도로 거기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한명도 너를 이길자가 없다는 것이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우박을 내려서 이스라엘 자손에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죽은 사람이 더 많다고 하였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여호수아의 기도가 나오는데,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머물러라라고 하였다. 13절에 보면 정말 대적에게 원수를 다 갚을 때까지 태양과 달이 멈춰 섰다는 것이다. 참 놀라운 일이다. 그냥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정도로 그 가나안 땅의 우상숭배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리스도 누리는 사람들로 세우는 것이 이정도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이다. 태양 달 멈추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그만큼 이 나라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다고 하였는데, 이 책은 성경의 이야기 중, 성경은 요점만 적었다면 거기에 설명을 붙인 책이 있었다. 지금은 전해지지 않는다고 한다. 거기에 보면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 그리고 야살의 책이라는 것은 사무엘하 1장 18절에도 인용을 했다. 이것이 오늘 사건의 요약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태양과 달이 멈췄다는 것이다. 전무후무한 일이다. 이 사건을 증명한 연구서도 있다. 하나님이 해와 달을 멈출 정도로 이 일이 중요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약속이다. 그러면 이 약속으로 받으려면 왜 멈추셨는가를 알아야 한다. 그 이유가 나의 이유가 되면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도 해와 달을 멈추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이유가 너무나 중요하다. 하나님은 뭐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 때 세계복음화 전쟁을 하고 있다. 가나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끊고 거기에 그리스도 오실 땅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앞으로 일어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계획을 진행하고 계신 것이다. 이 그리스도 일을 통해서 근본 문제 세가지로 무참히 죽어가는 자기 백성을 건질 일을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이다. 이 일을 하시는 과정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고 약속이다. 너도 세계복음화 하라. 그러면 너의 인생에 내가 해와 달을 멈출 것이라는 것이다. 진짜 일어났던 사실이고, 약속이다. 아무도 상상

치 못할일을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역사를 하신 것이다. 세계를 살리는 일을 위하여 너의 인생을 드려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할거다. 그러면 밤낮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해와 달. 세상은 사단의 저주 때문에 죽어가는 것 아니냐? 건져야 될 것 아니냐? 니가 만일 세계복음화의 인생을 살면 너의 인생 위에 태양과 달을 멈출 것이다. 약속이다. 그래고 내가 때때로 우박을 내려 너의 적을 죽일 것이다. 니가 죽이는 것보다도 이 우박이 죽이는 사람이 더 많을 것이다. 내가 너의 인생을 이런 인생을 만들어주겠다. 세계 복음화에 줄서라. 여호수아처럼 해라. 우박을 내려주겠다. 그래서 너의 적군을 다 꺾어주겠다. 그러면 너의 인생은 되어지는 인생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이다. 약속으로 잡기 바란다. 세계복음화를 향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응답을 받고 있는지 지금도 많이 보고 있다. 이렇게 된 인생을 보고 작품이라고 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될 수 있다. 이런 인생을 보고 망대라고 하는 것이다. 전세계에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할 망대이다. 우리가 복음을 가졌다는 것은 그냥 이론이 아니다. 이미 많이 체험했지만 진짜 체험하고 깊이 체험할수 있다. 오늘도 그 과정중에 하루인 것이다. 마음에 결심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신다. 약속으로 잡아라. 역사적 사실, 기적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오늘 너에게 주는 약속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내가 너의 인생에 이 태양과 달을 머무르게 하고 싶다면 내 소원을 위해 살아라. 그것 뿐만이 아니라 때때로 우박을 내려서 모든 적군을 정리해 주겠다. 이 언약과 함께 세계복음화를 위해 나는 사는 것이다. 내 인생을 가나안 전쟁에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전쟁에 내 인생 전체를 올인하는 것이다. 이것이 답이다. 응답이다. 응답 정도가 아니라 정복이다. 이미 우리가 받은 권세이다. 인생 정복해야 한다. 돈 정복해야 한다. 눌려 사는 것이 아니다. 문제 정복해야 한다. 눌려 살아서 되겠는가? 하나님인데? 태양과 달도 머무르게 할 것이다. 상상이나 했겠는가? 우박이 내려올 것을? 환경과 사람 신경쓰면 안된다. 괜히 시간 낭비이고 엄청난 손해이다. 특별히 영적으로 크게 손해가 된다. 상황이 어떻든 상관 없는 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Nothing, Nobody 라고 한 것이다. 필요 없다는 것이다. 여러 불평 불만 많이 나올수 있다. 그러나 답 나면 필요 없다. 아무 말도 필요 없다. 답으로 끝이니까. 답 나면 영권이 생겨버린다. 응답은 다음에 오는 것이고 일단 영권으로 정복. 누가 뭔 소리 해도 필요 없다. 답이 중요하지 사람 소리가 뭐가 중요하겠는가? 그래서 Nothing이고 노바디라고 한 것이다. 언약 잡고 환경과 사람을 정복해야 한다. 인간을 무시하는게 아니라 인간이 하는 모든 말을 정복하라는 것이다. 거기에 잡혀서 흔들리고 뒤짚어 질 필요가 없는 것이다. 상황 관계 없다. 노바디라도 좋다. 나띵이라도 아무관계 없다. 이게 언약이다. 우리는 이런 언약의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2. 사명과 헌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그것을 살고 그것으로 승리하고 증인되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가지신 유일한 소원이다. 저주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그러므로 저주는 없는 것이다. 저주같은 일이 있어도 과정이지 절대 저주는 없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다. 내가 너를 건졌으니 믿으라는 것이다. 믿음이 날아가면 영권도 다 날아가고 무너지는 것이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권이 늘 살아 있어야 한다. 안그러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 우리는 저주에서 건짐을 받았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많은 증거도 있지만 오늘 너무 힘들 수 있다. 오늘 TCK중창단 찬양 가사에 눈물날 일 많지만 기도할수 있다고 하였다. 늘 듣는 말인데 은혜가 되었다. 그럴수 있다. 그러나 언약 있고 기도 있다. 하면 된다. 큰 소리도 아니고 외치는것도 아니고 진짜로 기도 하기만 하면 된다. 억울한 일 많이 있다.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다. 참을수 있다. 기도하고 언약 잡고. 오늘 가사에서 주를 위해 참는다고 했다. 그러나 그 주를 위해 참는데까지 가는데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 언약 잡는 것이다. 나는 저주에서 해방이다. 기도하면 된다. 내가 세계복음화 위해 살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해도 머물게 하고 달도 머물게 할 것이다. 언약 잡으면 된다. 때때로 필요할때마다 우박을 내려 적군을 완전 정리해줄 것이다. 얼마나 중요하고 감사한가?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명과 헌신이 오히려 우리에게 응답이 된다. 우리가 노력하고 끝나는 손해가 아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 하실만큼 하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기도밖에 할것이 없다면 진짜 기도하면 최고의 헌신 일수 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기도가 최고의 헌신일수 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하나님이 아신다. 할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된다. 과부는 두 렙돈 밖에 못했다. 그러나 예수님이 최고 많이 했다고 하셨다.

우리는 광야를 살고 있다. 항상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또 하나 잊지 말 것은 항상 기적도 있다는 것이다. 언약 잡은 자의 특징이다. 어려움 없는 것이 아니다. 어려움이 있어야 기적이 있는 것이다. 힘을 내기 바란다. 하나님이 주신 답을 잡고 그 답으로 인생을 사는 이 인생을 시작하기 바란다. 그래서 개인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쌓는 단이 중요하다. 여기에서 모든 것이 다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안되는 것 같아서 중단하면 속는 것이다. 지속해야 한다. 어느날 보면 많은 것이 와 있다.

오늘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일어난 모든 것을 본 사람이다. 유월절 어린양의 피와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보았다. 엄청난 각인이 되었을 것이다. 이 피가 그 피냐? 싶었을 것이다. 그리고 광야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봤다. 이삭은 어렸을 때 실제로 산 재물이 되는 것을 체험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삭의 이야기는 성경 한 장으로 끝냈다. 야곱 이야기 총 10장, 아브라함 이야기 총 10장인데 이삭은 한 장이다. 갈등 많은 사람들이었다. 이삭은 갈등 없었다. 우리는 쫓겨가면 분통터져서 돌을 던졌을 것인데, 이삭은 아무말도 안하고 매일 쫓겨다녔다. 과정을 보면 바보 같다. 결론은 어떻게 되었는가? 지역 정복했다. 눈에 안 보이는 물도 정복했다. 샘의 근원이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복음에 답 났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신 것 답 났다. 그 때 체험한 것이다. 아버지는 나를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이 막았다. 간단한 일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매일 듣는 말인데, 이삭과 나는 차이가 뭔가? 이삭은 믿는데 나는 안 믿는 것이다. 생각 차이일 뿐이다. 왕이 찾아와 무릎 꿇었으면 지역 정복한 것이다. 어디에 물이 있는거 어떻게 아는가? 파면 기름 나오는 동네인데? 샘의 근원, 그 지역의 물을 정복한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 언제? 세계복음화 할 때. 그리스도 전쟁을 해야 한다. 약속의 땅 가나안 전쟁을 해야 한다. 너의 인생 위에 내가 해를 머물게 할 것이다. 너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될 때까지 너의 인생 위에 해와 달을 멈추게 할 것이다. 믿기를 바란다. 우리 같이 믿자. 그리고 변하지 말아야 한다. 역사하는 것이다.

부족한 중에도 우리가 전도와 선교에 헌신하는 것 중요하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너의 전도 위에 태양과 달을 멈출것이라고 하였다. 진짜 답 오는가? 답 오면 역사 일어나는 것이다. 잘 안되어지면 하나님 나도 이거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내게도 이 마음이 있게 해주옵소서. 어려운 중에 하면 더 빛날 것이다. 베네주엘라 오늘 가는데, 진짜 복음운동 지속할 제자 찾게 해달라고 기도해주기 바란다. 우리가 세계복음화에 내 인생을 맞추면 내가 태양과 달을 너의 인생에 멈춰주겠다 약속하셨다. 우리의 모든 전쟁이 끝날때까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리고 때때로 내가 준비한 우박을 내려서 흑암을 꺾겠다고 하였다. 언약으로 잡고 승리하기 바란다. 이런 저런 사람 소리, 거기 잡히면 안된다. 잡힐 이유가 없다. 환경과 인간을 정복해야 한다. 그것을 통해서 내 인생을 정복해야 한다. 돈, 정복해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줄 믿는다.